

광주시, 도시철도 공사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전력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현장회의 교통사항 모니터링 시민과 공유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구축 부서별 역할분담 시민안전 제고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 북구 오치초등학교 주

변에서 '교통혼잡대응추진단 현장회의'를 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혼잡 해소방안,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오치초교 주변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 자치구, 교통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교통혼잡대응추진단'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는 올해 초부터 본격

진행 중인 2개의 대규모 공사현장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호남고속도로가 중첩되는 광산IC 부근과 오치초교 주변은 본 공사가 진행되면 상당한 교통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 관련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공사 일정과 교통 현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공사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공사구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개의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당초 우려와 다르게 대규모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광주시와 교통관계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

방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은 지난해 말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대응단'과 실무적인 검토와 지원기능을 수행할 '실무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교통혼잡대응추진단은 지금까지 총괄대응단 회의 2회, 실무추진단 회의 4회, 공사구간 15개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시,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 연다

내일 전일빌딩245서 개최 시민사회 아카이브 전시·체험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2024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를 16일 전일빌딩245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서와 공익활동, 반가워 시민사회'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첫 번째 축제로, 환경·교육·인권·사회복지 등 공익활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시민사회 아카이브 전시, 공익활동 네트워크 등이 열린다. 또 공익활동의 가치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영역별 맞춤형 부스가 운영된다.

나눔과 기부의 장인 '아름다운가게'의 자원순환 나눔마켓, '한결음가게'의 세계 및 먹거리 리필스테이션 등도 운영된다. 포토존, 스탬프 투어,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행사 참여의 즐거움도 더한다.

개막식에서는 광주시민사회의 비전과 공익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 시청과 활동가 시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은 "광주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도시로,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익활동의 의미를 새기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이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구 세큰대 졸업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제1회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졸업생들이 1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졸업생 19명은 전공수업 40시간과 교양수업 60시간을 이수해 명예시민학사 학위증을 받았다.

광주 서구 제공

중국수입박람회서 전남 농수산물 '인기몰이'

8개 기업 통역·물류비 지원 1952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총 137건, 1952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촉진을 목표로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시 정부가 주최한 중국 최대 규모 국제 박람회로 12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3496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남에서는 매일식품(주)소스류, (주)현대

푸드 오징어 등 식품건어물, (주)에코월드 팜 구강케어상품, 사단법인한국천연염색습 천연염색 의류, (주)에이스코리아 전복 등 수산물 가공품, (주)마린테크노 클라겐화장품,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유아 가공품, 올바름 유기농 쌀과자 등 8개 기업이 다양한 우수 상품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박람회 참가 기업이 중국,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스 임차료, 통역비, 물류비, 항공료 등을 지원했다. 박람회 이후에도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과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콜서비스새 이름...최상 서비스 제공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자애로 해결"

전남도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콜서비스의 새 이름을 '전남 으뜸콜'로 선포하고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최상의 으뜸 서비스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4일 무안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성과보고회 및 '전남 으뜸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임흥빈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문예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종사자, 이

용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우수 종사자와 '전남 으뜸콜' 새이름 공모 수상자에게도 지사 표창 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한해 성과보고와 주요 유공자 표창, 새이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유공을 인정받은 여수 김성식, 순천 이규배, 나주 오복수, 목포 백영철, 화순 노회선 운전원과 바우처택시 분야 나주 장인호 운전원 등 6명이 수상했다. 도와 시군 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우수사례 공모 시상자 등 34명은 사회서비스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날 선포식을 통해 전남광역이동센터의 새로운 이름 '전남 으뜸콜'을 발표했다. '전남 으뜸콜'은 지난 8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총 2646건의 응모작 중

선정위원회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새 이름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연관성이 있고, 교통약자에게 친근함과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해결하고 OK 전남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래 교통약자법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신부 등을 위한 광역 콜 접수, 배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콜택시 212대, 바우처택시 494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 내일 '청소년상상페스티벌' 개최

5·18민주광장서 공연 등 선보

광주시가 16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2024 광주청소년 상상페스티벌'을 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기독교청소년협의회가 주관하는 상상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지역 대표 청소년축제로, 올해 11주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 등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기획단계부터 본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문화기획단이 진행하고, 지역청소년기관 15개 기관에서 △체험 △놀이 △요리 △공연 등 4개를 주제로 탄소중립 상상목공놀이, 드론체험, 탐블로백·팔찌·키링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순수한 주방의 비밀, 봉어빵·달고나 만들기, 버스킹 놀이터 등 6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사전 공연으로 상상페스티벌 초창기부터 활약해 온 청소년댄스팀 'K.J.N', '뉴에이지'의 무대와 청소년기획단의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진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생산자이자 실천가임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상페스티벌 사무국(062-367-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중장년층 생명 존중 프로젝트' 시동

금융-고용-정신건강 연계 협업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등 논의

전남도가 중장년층 극단적 선택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년층 생명 존중 프로젝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14일 국립나주병원에서 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장년층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금융-고용-정신건강 연계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남도가 도민의 극단적 선택 사례 분석 결과 실적, 퇴직 또는 퇴직 임박으로 인한 역할 축소, 박탈감, 경제적 위기 등으로 '40~60대 남자, 특히 50대 남

자'가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분석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40~60대 실직자 및 구직자를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어려움과 연계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방안,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시민금융지원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 저리자금 지원,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낮추고,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전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극단적 선택 수단 차단 사업, 유사시 현장대응 위기 개입팀 운영, 고위험자 심리상담 지원, 24시간 상담 전화(1577-1099), 응급실 기반 극단적 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 존중문화 조성사업 등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중장년층 생명 존중 프로젝트'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금융지원센터의 금융 상담 및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동환 기자